乙未年 安東宗親會 新年人事會

2015년도 안동종친회(회장 권주연) 주최 신년 인사회가 2월 28일 오전 11시 안동시청 내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안동권씨대종원 권정달 총재 내외분을 비롯하여 권영세 안동시장 내외분, 김광림 국회의원, 권오을, 권택기 전 국회의원, 권재주 전 안동종친회장, 이삼걸 전 행자부차관,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 5명의 시의원, 각 조합장, 족친(族親) 등을 포함하여 1,300여 명이 참석하였다.

권박 사무국장의 사회로 국민의례, 순국선열 및 문중을 빛낸 선조님에 묵념, 시조묘소 망배, 상읍례(相揖禮)에 이어 권주연 회장이 홍태옥씨(안동시 일직면)에게 효부상, 권기택 부회장에게 공로패, KBS '도전! 골든벨' 왕중왕 전에서 영예의 우승을 차지한 안동경안고 2년 권영성군에게 격려장을 각각 수여했다.

권주연 종친회장은 신년 인사를 통해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이 많이 참석하여 주어서 대단히 고맙다고 인사한 후 안동권문 가운데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많지만 특히 교육계의 세명대학교, 안양대학교, 안동과학대학교와 족친들이 인연을 갖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권정달 대종원 총재는 격려사에서 지나온 과거사를 열거하고 그동안 한국은 사회가 안정되고 경제가 발전되었으나 아직까지도 갈등과 분열이 많이 남아 있어서 안타깝다며 우리 모두 단합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하고 내년도 총선에 선거로 패를 갈라놓으면 안동이 복잡해지니 안동권문이 이에 앞장 설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 안동시민회관에서 안동종친회 신년인사회를 개최하였다. (원내 좌 권정달 총재, 우 권주연 종친회장

권영세 안동시장은 축사에서 안동시장으로 뽑아주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한다며 오는 7월 경북도청이, 9월에는 경북도교육청이, 내년엔 경북도경찰청이 안동으로 각각 이전하게 되면 외지인들이 많이 몰려올 것이 예상됨으로 안동의 좋은 이미지를 안동권문 족친이 앞장서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광림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도내 23개 시.군 가운데 안동시가 행정을 잘해서 1위를 차지했으며 전국 228개 자치단체장 중 권영세 안동시장이 영향력 있는 시장의 한사람으로 뽑혔다고 밝히자 족친들은 힘찬 박수를 보냈다.

권오을 전 국회의원,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 권영길 성주군 부군수, 권택기 전 국회의원도 짧지만 좋은 이야기의 축사를 하였고, 권영진 대구시장은 축전을 보내오기도 했다.

이어 경품추첨에 들어가 100여 명에게 각종 상품을 나누어 주었는데 영예의 1등상은 권상준씨(72)가 TV 1대를 수상했다.

〈보도부장 권영건〉

江陵宗親會 第38次 定期總會

강릉종친회는 지난 2월25일 강릉농협 문화쎈타에서 족친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新年賀禮를 겸한 제38차 定期總會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국민의례와 시조 태사공에 대한 망배, 족친 상호간의 건강을 기원하는 新年賀禮로 시작하였으며, 이어서 金振杏(복야공파 33세 권태경 처), 沈順德(복야공파 36세 권혁집 처), 權五奉(추밀공파 35세)씨에게 효행패를 수여하였고, 그동안 강릉청장년회장과 강릉시의원으로 권문의 위상을 높혀준 權赫基 족친에게 자랑스러운 종인상을, 權五潤 前회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하였다.

權寧珏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2년간 종친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시조묘역고유제를 비롯하여 선조유적지탐방, 원로회원간담회 등 각종 회합과 지파종회 모임에 참석하면서 안동권문의 법도와 족친의 끈끈한 정을 다시한번 확인하였으며, 특히 지난 2014년 2월 14일 영동지역의 유례없는 폭설로 종친회관의 건물 일부가 붕괴되는 예기치 못한 재난을 당하였을 때 힘을 모아준 족친들의 엄청난 결속력에 감복하였다고 회고하면서, 앞으로도 보다 자랑스러운 家門을 세워 나가는데 힘을 모으자고 다짐하였다. 權景晳 대종원 사무총장 겸 추밀공파 대종회장은 祝辭에서 유적지순례 취재차 이미 2차례에 걸쳐 강릉지역 선조님들의 유적지를 살펴보았는데 훌륭하신 선조님들의 위업을 본받아 강릉종친들의 화기애애한 모습과 활기찬 종친회의 운영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치하하였다. 이어 2014년도 宗務活動報告와 決算報告를 원안대로 의결하고, 2015년도 事業計劃을 확정하였다.

△ 강릉농협문화쎈타에서 강릉종친회 정기총회를 열었다. (원내는 권혁길 신임회장)

강릉종친회는 금년도에도 연례행사로 시행해 오던 先租遺蹟地探訪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잊혀져 가는 전통문화의 계승을 위하여 譜學講座와 傳統儀禮講座를 각 1회씩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지역내 선조님들의 숨결이 어려있는 유적지 10개소를 선정,"權門기림터 찾아보기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숭조사상을 높혀 나가기로 하였다.

이어 현 집행부의 임기만료로 신임회장에 權赫吉(복야공파36세)씨를, 부회장에 五烈(추밀공파35세), 五根(추밀공파35세), 寧喆(복야공파34세)씨를, 감사에 赫吉(추밀공파 36세), 其東(복야공파37세)씨를 선임하였다.

신임 權赫吉 회장은 수락인사를 통해 우리 종친회의 자랑스러운 傳統에 누가 되지 않도록 종인들의 衆智를 모아 미력이지만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종인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신임 權赫吉 회장은 辛巳生이며, 각급 宗事에도 열정을 갖고 깊이 관여해 온 분으로 지역사회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어 宗親會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실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이번에 족친들의 보학교재로 "永嘉의 脈"을 발간. 배포하였는데, 본 교재에는 안동권씨의 연원, 뿌리탐구, 보학상식, 생활예절, 전통의례 등을 요약 수록하여 족친들의 필독서로서 손색이 없도록 편찬하였다. 또한 본 행사에 직접 참석하지는 못하였지만 權正達 대종원 총재님과 權吉相 지역종친회장협의회장, 權赫昇 상임부총재, 권성동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많은 출향인사들이 축하화환과 축전을 보내주어 참석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 권혁윤씨가 편찬한 영가의 맥

〈강릉종친회 赫允〉

영주 종친회 신년회

지난 3월 6일 오전 11시 영주 종친회는 영주시 가흥동 현대식당에서 권오걸, 춘식 고문 및 영주 각면 회장 등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회를 개최했다.

권오국 사무국장의 사회로 상례행사에 이어 권오걸 고문의 인사와 권춘식 고문의 「선비와 군자」에 대한 설명, 권영순 교장, 권무탁 고문의 인사와 권영창 회장의 신년사가 있었다. 행사를 마치고 오찬에 들어가 권영창 회장이 사의를 표명해 오는 5월 경에 신임회장을 선출키로 했다.

〈권혁세 기자〉

제58차 예천종친회 정기총회

△ 권택문 회장이 예천종친회 정기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예천종친회(회장 권택문)는 지난 3월 1일 오전 11시 예천축협프라자 2층에서 권오정, 명학고문 등 2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8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권택기 사무국장의 사회로 권택문 회장은 인사말에서 사자성아와 15파조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권영학 고문의 축사가 있었다.

이어 권상현 감사의 감사보고와 총무의 경과 결산보고로 회의를 마치고 2부행사로 경품권 추첨과 흥겨운 노래자랑으로 행사를 마치었다.

〈권혁세 기자〉

2015년 서울산악회 始山祭

△ 제례후 단체 기념촬영

안동권씨서울산악회(회장 권영석)는 지난 3월15일(일요일) 오전 10시 서울대 입구 만남의 광장에서 회원50여명이 집결, 관악산 입구 무너미고개로 이르는 계곡에서 2015년 신년 시산제를 정오(正午) 시간을 기해 권오윤 부회장의 사회로 시조태사공 망배 이어 "지금부터 단기 4348년 서기(西紀) 2015년 안동권씨산악회 시산제를 거행하겠습니다."라고 고(告)한 후, 이어 권호일 부회장의 산악인 선서를 한후 권영석 산악회장의 강신례(降神禮), 초헌례 헌작으로 첫 잔을 올렸다.

이어 오윤 사회의 독축으로 "저희 안동권씨산악회 회원일동은 이곳 관악산에 올라, 이 땅의 모든 산하를 굽어보시며 그 속의 모든 생육(生育) 들을 지켜주시는 산신령님께 고 하나이다.(중략) "올 한해 우리의 산행 길을 굽어 살펴주시며 이 한 잔술을 흠향하여 주옵소서!"라고 고했다.

이어 아헌(亞獻)에 권오찬 감사가 헌작, 이어 종헌(終獻)에 권종훈 부회장(복야공파. 34世/現아주이앤지 건축 대표이사)이 헌작하였다. 이어 참석회원 연장자순, 권문의 딸래, 며느리 순으로 헌작 올렸다. 이어 제례의식이 끝난후 음복에 앞써 영석 회장은 오늘 제례상 머리고기와 편육을 정성스럽게 준비한 권경탁 前사무국장 부부를 격려하며, 회원들로부터 힘찬 격려 박수를 요청하였다. 이어 한자리에 모여 주(酒)과(果)포(脯)로 음복 후 산행지로 이동하였다.

이날 산행코스는 무너미계곡을 통과하여 제1. 2할딱고개를 넘어 삼막사를 거쳐 안양유원지(울엄니식당)월례회 장소에 오후3시 30분경 도착되어 권병길 사무국장의 의해 월말결산과 영석 회장의 인사후 신입회원소개로 권해옥(추밀공파. 35世.안양)딸래 소개 및 인사후, 권정찬 등반대장에 의해 4월 정기산행지 경기도 가평 호명산을 공지후 폐회를 선언하였다.

〈권범준 기자〉

권문(權門)의 후예(後裔) 미담사례

서초경찰서에는 지난2월21일 서초구 신반포중학교 3학년 재학중인 권혁준 군은 택시를 타고 이동중 택시내 현금뭉치 839만원과 상품권61만원 등 (합 900만원) 획득 경찰에 바로 신고하여 분실자에 찾아주는 선행을 하여 이에 서초경찰서장 조지호 서장은 권군의 학교를 방문하여 선행표창을 시상하였다.

혁준 군은 평소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주위로 부터도 모범학생이라 칭송이 자자하며 권군은 교내에서 시상후 소감으로 "당연한 일을 한것 뿐인데 누구라도 저와 같이 했을 거에요" 라고 겸손해 했다.

(자료제공: 권순용 서울청장년 사무국장)

〈권범준 기자〉

안동농협 조합장에 권순협씨 당선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안동농업협동조합 권순협(權純浹. 37世. 별장공파)후보가 조합장으로 당선되어 앞으로 또 4년간 조합일을 책임지게 되었다. 지난 3월 11일 실시한 안동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인수 총 6,288명 중 5,469명이 투표한 결과 권순협 후보가 3,163표(58%), 경쟁자인 김황동 후보가 2,287표(42%)를 각각 얻어 권 후보가 조합장에 당선되었다.

그는 조합장으로 취임한 이래 큰 도시1그룹 농협의 종합업적평가에서 전국 최우수농협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안동농협은 직원 340명과 조합원 6,400명, 년간 사업량이 2조 2천억원으로 전국 1,134개 농협 중 최고이며 하루 평균 파머스마켓에서 1억2천여만원, 주유소에서 1억여원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다.

〈보도부장 권영건〉

권문동상 탐방기〈2〉

권 동 진 (權 東 鎭) (2)
신간회 부회장(新幹會副會長) 동상(銅像)
민주의원(民主議員) 우당공(憂堂公)
신한민족당 당수(新韓民族黨 黨首)
건국공로훈장 복장(建國功勞勳章 複章)(受賞)

자는 장옥이고 호는 애당, 우당이며 도호는 실암이다. 증 참판 재형의 말째 6남이다.

철종12년 1861년 출생하였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여 한말에 함안국수를 지내고 육군 참령(소령)으로 별군직에 있었다. 그 후 개화당에 들어가 혁신운동을 하다가 고종19년, 1882년 임오군란 때에 개혁세력으로 거사한 뒤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그 뒤 천도교에 입교하여 도사가 되어 힘을 쓰다가 1919년 기미에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 3·1운동을 일으킨 다음 왜경에 체포되어 서대문 형무소에서 3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하였다. 출옥 후에는 다시 민족운동 단체인 신간회를 조직하여 그 부회장이 되었고 1929년 69세의 나이로 광주 학생의 거로 투옥되어 옥고를 치렀다.

1945년 해방 후에는 신한(新韓民族黨)을 창당하여 그 당수가 되고 민주의원 의원에 당선되었다. 그러다 1947년 3월 9일에 졸하니수가 87세였다. 사후 15년 만인 1062년에 대한민국 건국 공로훈장 복장이 수여되었다. 배위는 숙부인 인천 채씨로 1920년 5월 24일 졸하였는데 화장하였으며 공의 묘소는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 애국지사 모역에 있다. 아들은 영직에 있다. 공의 동상이 청주 3·1공원에 있다.

△ 우당 권동진 선생 동상 앞에서 권영혁 사장이 참배하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신년맞이 능곡회(陵谷會) 윷놀이

안동능곡회(陵谷會: 회장. 권순창) 주최 <신년맞이 능곡회 윷놀이 한마당>이 2월 28일 오후 5시 30분 안동시 정상동 '홍기와 쭈꾸미' 식당에서 능곡회 부부회원 50여 명, 능우회원 10여 명 모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윷놀이에 앞서 저녁 식사를 맛있게 먹었다.

식사가 끝나자 권기춘 사무국장의 사회로 권순창 회장은 인사말에서 "많은 회원과 능우회원들이 참석하여 주어서 대단히 고맙다"고 말했다.

1부 행사가 끝나자 2부 행사로 청. 홍 두팀으로 나누어 윷놀이로 오랜시간을 즐겁게 보냈으며 경품추첨으로 푸짐한 선물을 골고루 나눠 주었다.

능곡회는 안동권씨의 젊은 청년들 모임단체이며 숭조사상(崇祖思想)을 기본으로 하는 회(會)이다.

〈보도부장 권영건〉

• 동정

▲**권오준 포스코회장**은 지난 14일 취임 1주년을 맞았다. 권 회장이 지난 1년은 과감한 구조조정, 실적개선, 미래성장사업으로 5부능선을 넘었으며, 지난해 본사 기준 매출액 29조 2189억원, 영업이익 2조 3500원을 기록했다.<머니투에이 2015.3.15>

▲**권영진 대구시장**이 2015년 중앙일보, 중앙SUNDAY가 주관한 한국을 빛낸 창조경영 CEO에 선정, 책에 수록되어 지난 17일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 참석했다.

▲**권무탁(대영 중·고등학교 이사장 본원 부총재)**가 올해 대학입시(4년제 대학)에 재학생 중 지원자 114명이 응시해 109명(합격률 95.6%)이 합격했으며 또한 졸업생 12명이 응시해 9명(75.0%)의 좋은 성적으로 합격했다.

▲**권오현 삼성전자 DS부분 대표이사 부회장**은 지난11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15 상생협력데이'에서 "전부분의 혁신을 통해 차별회된 경쟁력을 확보, 세계시장에서 절대 우위를 이어가자"고 밝혔다.

▲**권종화(부정공파·36세) 부산재향군인회장(2007.8~2015.1)**이 재임시 대지 130평 매입가 25억원의 재향군인회관을 마련해 부산재향군인의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했다.

▲지난 1일 환경운동연합이 신임공동대표로 권태선 허핑턴포스트코리아 대표를 선출했다. 권 대표는 코리아타임즈와 한겨레신문기자 한겨레신문 편집국장을 역임했다.

▲**권순택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이 최근 고려대 관훈신영기금 교수로 임명됐다.

▲**권혁승(백교문학회장)**씨가 23일 오후 3시 프레스센터 20층에서 한국의 효사상을 주제로 한글모음(세상의 빛, 어머니 사랑)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지난 24일 권오정 성균관대 의대 교수가 결핵연구로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